

창세기 아브라함/야곱 내러티브 번역 제안

-창 12:1; 25:27; 33:11에 대한 새로운 번역-

신우철*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야곱 내러티브에 나타난 세 가지 구절들(창 12:1; 25:27; 33:11)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을 담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배제하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5:27과 33:11은 야곱의 이해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로서, 이 구절은 야곱이 12:1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즉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접근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선택된 구절들은 모두 평이한 수준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에 가까운 번역본이나 역동적 동등성¹⁾을 추구하는 번역본들 모두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번역본들은(『개정개정』 및 『새번역』) 해당 구절들에 대해 역동적 동등성을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본문의 흐름과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해당 구절에 대해 마소라 본문의 본래의 의미(프샤트: peshat)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며, 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창세기 12:1

원문(마소라): לָךְ לְךָ מֵאֲרָצָה וּמִמּוֹלֶדְתָּהּ וּמִבֵּית אָבִיךָ (‘레호 레하 메아르제 하 우메몰라드테하 우미베이트 아비하’)

『개정개정』: “...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번역』: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 연세대학교 강사, 구약학.

1) 본 논문에서는 의역에 대해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의 153쪽 각주 2에 나오는 용어인 ‘역동적 동등성’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제안: “...너는 네 땅과 네 고향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

본문(12:1)의 정황은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래와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거류하였던 시기(11:31)이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 아브람에게 여행을 속개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란’ 혹은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가나안(혹은 ‘내가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개역개정)’이라는 다소 장황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 구절에서 아브람이 떠나야 하는 장소가 ‘베(1)’라는 등치(병렬) 접속사로 연결되어 지시되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등으로 연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접속사의 역할은 동일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가 별개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본 논고는 이 접속사의 역할을 동일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장소를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 문학적 효과는 동일 장소를 강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2.1. 장소의 속성

현재 아브람은 하란에 거주하고 있다. 만일 ‘베(1)’의 역할이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부적합성을 부각하는 것이라면 그 본질적 역할은 여러 요소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거나 분명히 하기 위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개역개정』이나 여타 영미권의 주요 번역본들은(아래의 ‘주요 번역본 비교’ 참조) ‘베’를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즉 아브람이 떠나야 하는 장소를 분명히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장소, 약속의 장소와의 대비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적 번역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두 번째 요소가 결립들이 되는 것이다. 『개역개정』의 예를 보자면 (다른 영미권 번역도 마찬가지다) 첫째 요소인 고향과 셋째 요소인 아버지의 집은 물리적

2) HALOT 2001 ed., s.v. “בֵּי”. 예를 들어 속 9: 9의 בְּנֵי־חֲמוֹר וְעַל־עֵינֵי בְּנֵי־אֲחִינֹחַ (“알 하모르 베알아이르 벤.아토노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HALOT에서 정확히 지적하듯 『새번역』이 ‘베’를 정확히 번역했다.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 이에 비하면 『개역개정』이 다소 정확성을 결여한 듯하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효과를 위한 유사한 문학적 장치를 같은 책 22:2(‘아케다 Akeidah(עֵקִידָה)’): 이삭의 결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혼동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비록 ‘베’라는 등치 접속사는 쓰이지 않았지만 ‘에트(אֵת)’라는 목적격 조사(n.a.)를 3번 나열함으로써 동일 인물에 대한 초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소이지만 둘째 요소인 ‘친척’은 인적 요소인 까닭이다³⁾. 만일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을 강조하기 위한 번역의 의도라면 둘째 요소도 장소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물리적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실 마소라 본문은 그러한 의도를 이미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⁴⁾. 즉 『개역개정』에서 첫째 요소인 ‘고향’으로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 마소라의 본문의 둘째 요소(‘몰레테트’ מולדת)인 것이다. 마소라 본문은 직역하면 ‘땅’, ‘고향’, ‘아버지의 집’ 순서로 모든 요소를 장소의 개념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굳이 『개역개정』 및 대부분의 영미권 주요 번역에서 채택하는 특징인 ‘인적 요소’를 삽입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새번역』에서 채택 중인 번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새번역』에서는 마소라 본문을 충실히 따르려 했지만 과도한 ‘친절’을 보인 끝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발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 순서로 모두 동일한 속성의 물리적 장소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12:1의 논리적 정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현재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하란이라면 첫째 요소인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과 셋째 요소인 ‘아버지의 집’은 논리적으로 들어맞는다. 하지만 둘째 요소인 ‘네가 난(태어난) 곳’으로 번역한 ‘몰레테트(מולדת)’는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갈대아 ‘우르’로서 이미 떠난 곳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맞지 않다. 이미 떠난 곳을 또 떠나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새번역』의 번역대로라면 아브람이 태어난 곳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11:27-28 그리고 15:7에서 아브람(아브라함)의 출생지를 갈대아 우르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번역본 비교

가톨릭 『성경』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
- 3)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11:28에서 ‘몰레테트(מולדת)’를 고향 혹은 각주에 ‘출생지’라고 직역하였지만 이어지는 12:1에서는 같은 단어를 ‘친척’으로 의역한 것이다. 12:1의 ‘고향’과 11:28의 ‘고향’은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다. 12:1에 번역된 고향은 ‘에레쯔(ארץ)’로 단순히 ‘땅’, ‘나라’ ‘지역’으로 직역될 수 있다.
- 4) 그렇다고 본문의 ‘베’의 역할이 동일 장소를 강조하기 위한 나열의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이한 요소의 나열을 통해(이 경우엔 광의에서 협의의 장소) ‘분리’의 급진성, 완전성,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톨릭 『성경』은 후술하는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소를 의역하고 두 번째 요소는 LXX의 번역을 따랐다.

NIV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NET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out from your country, your relatives, and your father’s household

NIV는 자유로운 역동적 동등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몰레데트(מולדת)’를 people (민족)으로 의역한다. NET의 경우 역시 두 번째 요소를 인적 요소로 번역함으로써 앞으로 후술하게 될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분리를 드러내는 원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NRS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70인역을 따르고 있다. 역시 두 번째 요소를 인적 요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문학적 효과를 반감시킨다.

RSV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위와 동일하다.

TNK(1995) The LORD said to Abram, “Go forth from your native land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TNK 1995년 번역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역동적 동등성을 추구하면서 1917년의 번역에서 후퇴한 느낌이 든다⁵⁾.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를 결합하여 원문의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에레쓰(ארץ)’와 ‘몰레데트(מולדת)’를 하나의 요소로 결합하여 처리한다. 마치 아브람이 하란 출신이라는 해석을 집어넣는 것 같다.

TNK(1917) Now HaShem said unto Abram: ‘Get thee out of thy

5) 1917판과 1995판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 마빈 스위니(Marvin Sweeney) 교수도 필자와의 개인적 담화(2012년)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y father's house, unto the land that I will show thee.

1917년 TNK이 원문에 충실한 편이나 둘째 항목의 번역을 LXX를 따른 점이 아쉽다.

ZB Und der HERR sprach zu Abram: Geh aus deinem Land und aus deiner Verwandtschaft und aus dem Haus deines Vaters in das Land, das ich dir zeigen werde.!

독일 번역(Züricher Bibel) 역시 LXX의 둘째 항목 번역을 선호한다.

LXX καὶ εἶπεν κύριος τῷ Ἀβραμ ἔξελθε ἐκ τῆς γῆς σου καὶ ἐκ τῆς συγγενείας σου καὶ ἐκ τοῦ οἴκου τοῦ πατρός σου εἰς τὴν γῆν ἣν ἂν σοὶ δεῖξω

둘째 항목을 ‘성계네아(συγγενεία)’로 번역하여 물리적 요소의 병렬을 저해하였다. 후대 많은 번역의 의역이 이에 기초한다.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가장 권위 있는 한글 번역이 오히려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후에 『새번역』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새번역』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라.”

오히려 원문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동적 동등성이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저해한 측면도 있다. 첫째, 네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첫째 항목을 의역함으로써 지금 이 소명이 하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오히려 이 부분은 원문처럼 ‘네 땅’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둘째 항목은 의역이라기보다는 직역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새번역』처럼 읽을 경우 첫째 항목은 하란이 되고, 둘째 항목은 우르가 된다. 셋째 항목은 하란인지 우르인지 확실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역 혹은 역동적 동등성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저해가 된다. 첫째 항목은 의

역을, 둘째와 셋째 항목은 사실상 형식적 일치 번역(문자적 직역)을 택했기 때문이다.

2.2. 장소의 이동

아브람이 떠나야 하는 대상이 어떤 ‘장소’라는 마소라 본문의 기본 개념에서 우리는 보다 정확한 번역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현재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는 헷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광의의 장소로의 이동을 상징한다면 어떨까? 이것은 논리적 수순에 따르는 것이다. 즉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는 구체적 지점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의 진행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구절은 ‘아비의 집’, ‘고향’, ‘그 땅’의 수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런 이동과 분리의 수순이 된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비의 집을 나서야 하고, 결국 고향을 벗어나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땅’의 국경을 벗어나야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본문은 이러한 물리적 수순을 역으로 배치(그 땅, 고향, 아비의 집)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도 추가된다. 만일 본문의 명령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둘째 요소(내가 난 곳)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하란은 아브람이 태어난 곳이 아니다. 아브람은 그의 형제 하란(인명)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것이다(11:28). 따라서 이 명령이 하란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지칭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2.3. 영적인 분리 요구

아브람에게 있어 그의 땅,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15:7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⁷⁾. 따라서 우리는 12:1의 구절을 갈대아 우르를 염두에 둔 소명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지금 아브람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를 우르로부터 불렀으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

6) 이 경우 고향은 단지 태어난 곳이라는 헷의 의미(우르)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했던 광의의 의미(하란)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마소라 본문을 따라 직역할 경우 이러한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7) 우리는 아브람이 우르를 떠날 때(11:31), 자신에게 내려진 소명에 의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지, 혹은 데라가(소명을 받고) 아브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우르와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원거리(아비의 집-고향-그 땅)가 아닌 원거리에서 근거리(그 땅-고향-아비의 집)라는 심리적 단절을 요구한 것이다. 아비의 집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고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고향’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태어난 나라(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점진적, 물리적 수순의 분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의 물리적 근원과의 본질 단절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다⁸⁾. 그러기 위해 아브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땅의 국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그 땅). 그 땅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아브람은 고향이나 아비의 집으로 회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완전한(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리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베(1)’의 역할은 동일 항목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 항목의 나열이라는 병렬 접속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동일 항목에 대한 강조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이다.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이라는 상이하지만 이어지는 항목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들을 나열함으로 i) 떠나야 하는 장소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ii) 분리의 급진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4. 소결

창세기 12:1의 정황은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이지만 그 본질적 맥락은 우르의 아브람이다. 하란을 중심으로 읽을 때, 첫째 요소(네 땅: 하란)와 둘째 요소(네 태어난 고향: 우르)는 양립하기가 서로 어색하다.⁹⁾ 하지만 우르의 아브람을 염두에 둘 때 마소라 본문의 의도는 정확히 일치한다. 우르는 실제로 아브람의 땅(네 땅)이었고, 아브람이 태어난 장소(네 고향)였으며, 아브람의 조상(네 아버지의 집)이 살던 곳이다. 하란에 거주한 아브람은 지금 그의 육적, 물리적 기원인 우르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가 아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 소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소명은 우르를 완전히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이라는 수순으로 배열함으로써 가나안으로

8) 이런 관점에서 궁켈의 “most difficult test of faith”라는 평가가 수긍이 간다. Herman Gunkel, *Genesis*, Mark E. Biddle, trans., Macon Library of Biblical Studie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63. Westermann은 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C. Westerman, *Genesis 12-36*, 148.

9) 아브람이 우르와 하란에 거주했을 때 데라와 함께 있었던 점에서 셋째 요소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의 이주를 재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소라 본문의 본래 의도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네 땅과 네 고향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로 번역(직역) 함으로¹⁰⁾ 위에서 제기된 모든 불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소라 본문의 의도는 가장 광의의 지역(심리적/영적인 효과)인 그(아브람)가 거주하는 땅(‘에레쯔 אֶרֶץ’)에서 고향(‘몰레데트 מולדת’)을 거쳐 아버지의 집이라는 협의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분리의 완전성, 철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LXX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본래 원어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2:1을 “...네 땅과 네 고향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3. 창세기 25:27의 번역

원문: וַיִּקְרָא אֵישׁ הָאֵלֹהִים

『개역개정』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새번역』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번역 제안: 야곱은 온전한 사람으로

3.1. 야곱에 대한 편견

본 구절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을 보면 야곱을 묘사함에 있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서는 사냥에 능한(히: 사냥을 알고 있는) ‘들판의 남자’이고, 대조적으로 야곱은 장막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에 조용할 것 같고 성격이 차분할 것 같아 보인다.¹¹⁾ 또한 바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내용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권의 가치를 팽개치는 에서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매우 신중하며 주도면밀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25:27에 나타난 야곱의 평가에 역으로 반영된 듯하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조용한’ 성격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모친과 공모하여 축복을 가로챈 정도로 ‘진취적인’ 성격이었으며, 음흉한 성격의 장인 라반 밑에서 20여 년을 견딜 정도로 강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야곱의 성품이 ‘온화’한 것으로 번역한 또 다른 이유

10) 이 경우 『새번역』을 읽을 때 나타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 사이의 논리적 모순도 피할 수 있다.

11) TNK 및 LXX를 포함 고대 및 현대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곳의 וַיִּקְרָא를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을 묘사하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주요 번역본 비교 참조.

는 야곱의 일생에 걸쳐 그의 삶이 ‘탐(און)’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일차적 의미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이 야곱의 초기 인생의 특징인 것 같다. 따라서 원문이 야곱을 ‘탐’이라고 묘사했을 때, 이 어휘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징을 번역본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주요 번역본 비교

가톨릭 『성경』 이 아이들이 자라서, ...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ZB Jakob aber war ein gesitteter Mann

NET Jacob was an even-tempered man, living in tents.

NRS Jacob was a quiet man, living in tents

현대의 주요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야곱을 조용한 성격으로 묘사하는데, 이 성격적 특질이 야곱이 궁극적으로 에서를 대체하도록 만든 본질적 원인임을 성서가 나타내려는 것일까? 조용한 성격이라고 해서 장막에 거주하기를 선호한 사실과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3.2. 온전함의 본질을 보여준 야곱

여기서 야곱에게 사용된 형용사 ‘탐(און)’은 동사 ‘타맘(אָמַם)’에서 나온 것이다.¹²⁾ 비록 HALOT에서도 위 본문에 적용된 뜻을 따로 떼어 개화된(civilized), 혹은 예의 바른(well-behaved)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타맘’ 혹은 ‘탐’이 지닌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뜻을 억지로 피해가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탐’이란 형용사는 욥을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였으며(1:1),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관점으로 보아 ‘완전한(perfect)’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형용사이다¹³⁾. 이 단어가 ‘야사르(יָשָׁר)’라는 단어와 동의적 평행을 수행하며(욥 1:1), 정 반대의 의미를 지닌 ‘라샤(רָשָׁע)’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욥 9:22)도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성서가 야곱을 욥의 반열에 올려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하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욥이라는 인물에서 나타나는 모습의 ‘온전함’은 이 구절 이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일 따름이다. 그렇다고 사전적 의미를 따라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개화’된 사람이라든지, 행동이 더 ‘예의 바

12) HALOT 2001 ed., s.v. “אָמַם”.

13) Ibid.

왔다’는 것(ZB)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번역이 선호하는 것처럼 성격이 다소 조용했다는 것도 아닐 것이다. 장막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해서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추정할 논리적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직업을 피해야 하고, 특정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야곱의 전 생애를 조망한 후에야 왜 성서가 그를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에서와의 경쟁과 반목으로 부모와 고향을 떠나 유랑을 해야 했으며, 외삼촌 라반과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긴장 가운데 보내야 했다. 그마저도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다. 그가 실제로 조용했는지 차분했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날 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족하며(창 33:11),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였다¹⁴⁾.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인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אִישׁ כָּמֹנִים)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3.3. 소결

우리는 본문이 매우 뜬금없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인간적 관점에서 의역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존중하여 야곱을 ‘온전’¹⁵⁾하거나 ‘정직한’ 사람으로 번역해야 한다. 독자들이 번역자의 취향이나 해석이 아닌 성서의 본래 의미와 논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것이다. 독자들은 성서가 주장하는 ‘온전한 사람’에 대한 표준을 옳과 같은 의인뿐 아니라 야곱과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번역 제안은 또한 본래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음모와 갈등, 좌절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전한 사람은 야곱처럼 적대적인 시간들을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기에 본문은 야곱을 주저함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 역시 마소라의 표기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

14) 구약의 전통 내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분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랍비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목적, 특히 유대인의 존재 이유를 ‘티쿠네이 올람(세상의 개선)’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야곱의 온전함 혹은 완전함은 그가 미래에 이루게 될 변화와 성장을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삼상 10:6 참조.

15) 한국 교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온전’ 대신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평이한 말로는 ‘완전’이라는 말도 무방할 것이다.

4. 창세기 33:11의 번역

원문: וְכִי יִשְׁלִיכֵל

『개역개정』 내 소유도 족하오니 ...

『새번역』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제안: 내게 모든 것이 있사오니 ...

4.1. 풍족함인가 전부인가?

본문은 33:9에서 에서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소유가 ‘라브(רב)’(족하다, 풍부하다, 많다)하니 야곱의 선물(혹 뇌물)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쿨(כל)’(전부, 모두, 완전)¹⁶⁾이라고 화답한다. ‘라브’와 ‘쿨’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다.

먼저 주요 번역본들의 예를 살펴보자. 영미 계열의 번역본들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해 직역(all)을 택한 쪽(가톨릭 『성경』, NIV, NRS, ZB)과 역동적 동등성(enough)을 택한 쪽(RSV, TNK)으로 나뉜다. LXX는 오히려 직역(πάντα)을 택하고 있다.

가톨릭 『성경』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NIV I have all I need.”

NWT and I have all I need.

NRS I have everything I want.”

RSV I have enough.”

TNK I have plenty.”

ZB mir fehlt es an nichts.

LXX ἔστιν μοι πάντα

만일 야곱이 에서보다 재산이 많았다면, 그리고 그 의미로 ‘완전’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면 이는 야곱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 된다. 에서와의 반목은 바로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야곱이 이 순간, 자신의 재산이 에서의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를 떼어 선물(혹 뇌물)로 지급하려 했다면 오히려 에서의 증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에서가 볼 때 야곱의 재산 축적은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결과이기 때문이다.

16) HALOT 2001 ed., s.v. “כל”.

반대로 에서보다 재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면 오히려 에서의 비웃음만 샀을 것이다. 양자 간에 평화로운 분리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에서와 마찬가지로 ‘족하다(라브)’는 의미를 형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4.2.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본문에서 실제로 누구의 소유가 더 많은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두 경우가 모두 아니라면 본문이 ‘쿨’을 통해서 시사하려는 핵심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혹은 에서의 시각)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소유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쿨 55’)을 소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는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으려 했으며, 이삭을 통해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마저도 가로챘다. 아마 그는 이것이 자신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는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가치와 영적인 축복을 보여 주었다. 에서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 천사와의 조우를 경험했으며, 라반 슬하에서의 20여 년의 삶을 통해 삶의 진정한 소유와 축복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다시 한 번 그에게 나타남으로써(3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다(32:29). 비록 이러한 강렬한 경험을 통해 신체적 결함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32:31) 야곱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육신의 온전함, 소유의 풍부함(‘라브 67’)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4.3. 소결

야곱은 에서와의 생명을 건 조우와 협상의 와중에도 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문맥임에도 불구하고(매우 교만하게 들렸을 것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내뱉게 된 것이다. 에서의 야곱의 선물을 가볍게 여겼을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55)을 주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형제와의 관계를 되찾았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비록 이후에도 그에게 남아있는 삶은 고되고 험악한 것이었지만(창 47:9) 그는 이 고백

을 통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개역개정』 혹은 『새번역』 공히 직역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톨릭 『성경』 및 일부 주요 번역본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라고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5. 나가는 말

야곱은 에서를 제치고 아브라함/이삭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야곱은 아브라함 및 아버지 이삭과 비교할 때 많은 약점과 결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타나며 야곱은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그 위상의 반전을 목격한다. 본 논문은 왜 야곱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시작부터(12:1) 드러난다. 하지만 성서의 기자는 야곱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시작부터 밝히고 있다. 독자들은 야곱이 왜 ‘완전하며’ ‘온전한’ 사람(25:27)이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독자의 의구심은 많은 역경과 시험을 거친 후 에서와 다시 만났을 때 해소될 수 있다(33:11). 이제 야곱은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에서 앞에서 신앙고백은 왜 에서가 아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야 하는지 웅변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등장한다.¹⁷⁾ 민족의 조상, 아니 민족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인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변화와 성장의 표본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12:2)을 야곱을 통해 보았다¹⁸⁾. 갈대아 우르와 ‘온전한’ 분리를 감행한 아브라함은(12:1), 야곱의 ‘온전함’(25:27)을 알아보았고,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여정의 계보에 들어가는 특권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33:11)으로 여긴 것이다.

(투고 일자: 2012. 10. 22. 심사 일자: 2012. 12. 21.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

17) 창 35:10 이후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계속 불린다. 창 37:1 이하 참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뒤 한 번도 옛 이름으로 복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야곱의 경우는 특별한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8)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창 21:5).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다(25:26).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창 25:7).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60세에 야곱의 출생을 보았으며, 이후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본문은 암시한다.